

# 어린이를 섬기는 사회와 책

## 지금 이곳의 우리들 어린이책을 위하여 7

### 이호백

아동출판 기획자

어린이를 위한 출판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목소리 속엔 우리의 유치한 어린이책에 대한 민망스러움과 박람회 등을 통해 보아온 해외의 질 좋은 책들에 대한 경이로움이 섞여 결국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을 우리의 아동출판에 대한 위기의식을 담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은 '제대로' 된 출판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러 일으키게 해주고 '무언가' 새로운 책을 기획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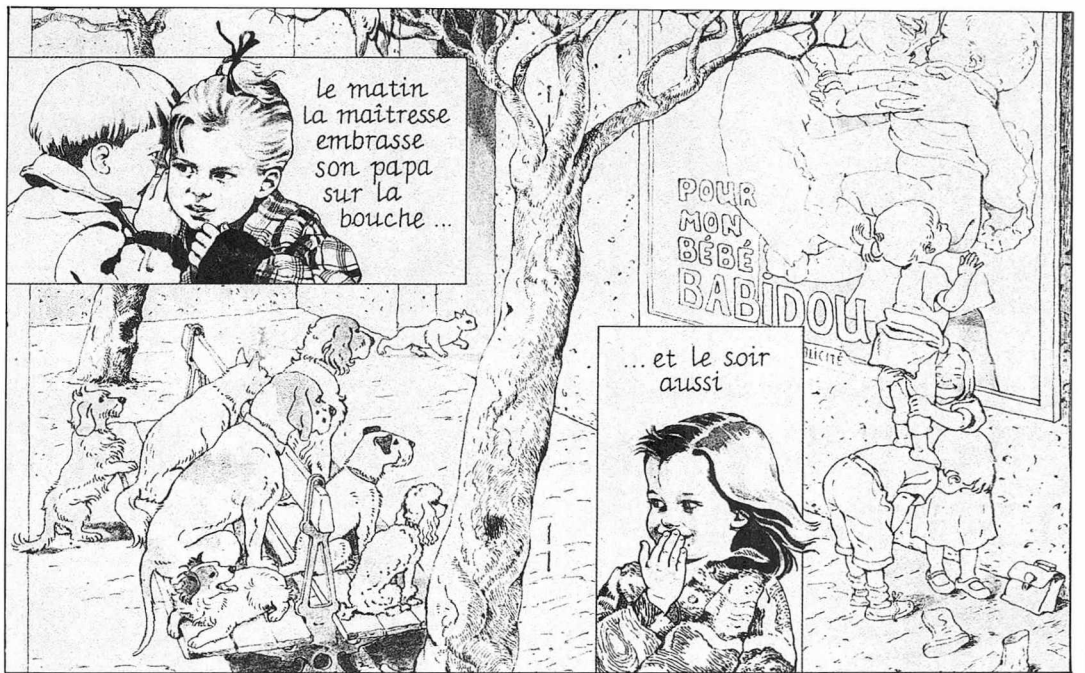
문제의식을 갖기는 쉬워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출판물에 대한 기대와는 상관 없이 독자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각박한 어린이를 위한 문화때문이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의 논리 속에서 책을 만들고 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버둥거릴 때 함께 매달려 움직이는 상흔 속에 우리의 어린이 책이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가 '어린이'라는 어느 문명사회에나 존재하는, 때묻지 않은 종족과 함께 사는 방식을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을 강제로 교육하고 지배하여 어른의 식민지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보존하고 섬기는 모습이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해 새로운 책을 만들고자 하는 공모에 가담된 모든 이들이 이런 모습을 찾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좋은 기획과 좋은 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어린이를 섬기는 출판의 모습 중 마치 '반 어린이주의'를 표방하듯 기존 출판의 어린이다움의 한계를 벗어던지려고 한 두 출판사 이야기이다.

### '반 어린이주의'

"어린이를 위한 예술은 따로 없다. 예술이 있을 뿐이다. 어린이를 위한 그래픽은 따로 없다. 그래픽이 있을 뿐이다. 어린이를 위한 색깔은 따로 없다. 색깔이 있을 뿐이다. 어린이를 위한 문학은 따로 없다. 문학이 있을 뿐이다."

프랑스의 한 아동심리와 예술(교육관련)학자가 '어린이를 위한 책...'이란 무엇인지 살피는 글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고를 전개시키



크리스티앙 브뤼엘  
「선생님들이 먹는 것」  
일러스트레이션 안 보졸레,  
미음을 사로잡는 미스,  
1988년.

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특히 출판계에서 일하고 있는 어른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을 흔히 했을 줄 안다. 보는 순간 짜릿한 조형적 체험을 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책,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한참을 들여다 보게 만드는 재미난 책, 무언지 몰라도(모르는 외국말로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게 되는 책, 이야기가 너무 교훈적이라 못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까지 하는 감동이 있는 그런 '어린이를 위한 책'들 말이다. 이렇게 어린이를 위해서 나온 책이면서 어른들을 감동케하는 책들이 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돈을 주고 사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산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책.

우리가 서양에서 나온 많은 '어린이 책'을 보면서 이런 감동과 전율을 체험했다면, 분명 그 출판물 속에 담긴 '반 어린이주의'의 정신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출판에서 이 '반 어린이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첫째는 글의 차원에서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언어를 가공하려 들지 않고 글을 쓴 작가가 '온전하게' 풍부한 언어구사 속에서 문학을 하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이미지의 차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이미지가 특별하게 있다는(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되었건, 상업적인 동기에서 만들어졌건 간에 상관없이) 고정관념을 넘어 모든 조형언어를 풍요롭게 다루는 경우이다.

특히 조형적인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그 이미지를 보는 주체의 직관과 상상력

등이 발동되어 진행되는 복잡하고 변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이미지가 우리를 환상으로 이끌고,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고, 꿈꾸게 하려면 그 속에 이미 조형적인 복잡성과 풍요로운 이야기깃거리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것이 좋고 복잡한 것은 안 좋다"는 생각은 이렇게 어른들을 감동하게 해주는, 따라서 자신의 아이에게도 조심스럽게 건내주게 되는 '반 어린이주의'의 책에 의해 처참하게 부정된다.

###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의 경우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Creative Education)' 출판사에서 나온 어린이책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출판사가 지향하고 있는 '반 어린이주의'적인 색채를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 전반에 걸쳐 느낄 수 있다.

스위스의 일러스트레이터인 에티엔느 들르세르(Etienne Delessert)와 그래픽 디자이너 리타 마샬(Rita Marshall)이 이끌고 있는 디자인 회사 '들르세르와 마샬(Delessert & Marshall)'에서 전체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 출판사의 책들은 정갈하고 고전적인 편집 디자인과 복잡성, 상징성, 추상성을 풍부하게 살리고 있는 마샬 아리스만, 에티엔느 들르세르, 개리 켈리, 로베르트 이노첸티 등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을 사용하여 일관된 고감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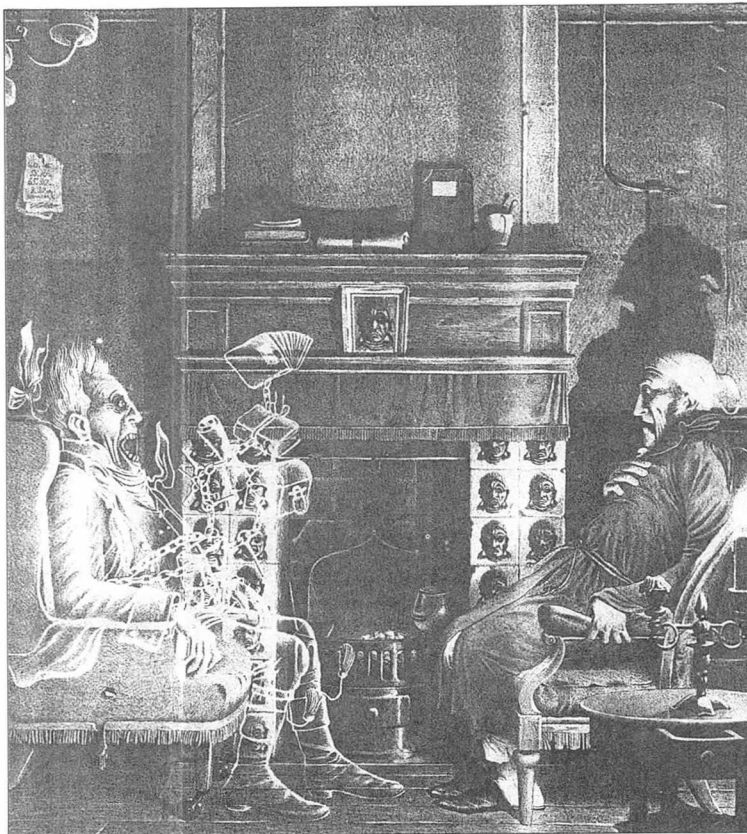
이 출판사의 전래동화 시리즈들은 매우 난해한 이미지들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 샬르 페로의 '빨간 두건 소녀'는 사라 문(Sarah Moon)의 사진작업으로 연출되어 있

다. 그로테스크한 도시의 뒷골목 풍경과 위험한 여정을 앞두고 있는 어떤 여자아이의 모습, 늑대의 그림자, 뒤엉킨 침대보 등 어린이를 위한 이미지치고는 그 복잡성과 상징성이 극도로 '반 어린이적'인 것들이다. 이외에도 로랜드 토퍼(Roland Topor), 조르즈 르무완느(Georges Lemoine) 등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한 그림동화와 안테르센 동화 단편 들에는 섬뜩한 이미지, 극도로 상징화된 동화의 등장인물로 이들 전래동화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해석들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고학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지향하는 이탈리아의 거장 로베르트 이노첸티(Roberto Innocenti)의 '크리스마스 케롤'의 미국 번역판이 이 출판사에서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노첸티의 극도로 사실적인 일러스트레이션 뒤에 숨어 있는 골동품처럼 역사적 현장감과 광각의 시선 곳곳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묘사는 디킨스 문학을 새로운 영상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 고전을 재해석하는 일은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의 천직이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의 주요 출판물들이 이루고 있는 창작의 세계는, 철두철미한 실험정신을 페로와 그림형제, 레드야드 키플링, 찰스 디킨스, 제임스 조이스, 톨스토이 등 이미 고전이 된 문학에 적용시키고 있어 출판물 전체에 '새로운 고전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이 출판사의 신고전주의, '반 어린이주의'는 편집과 타이포그래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점잖고 고상한 타이포그래피를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롤」 일러스트레이션 로베르트 이노첸티.



크리스티앙 브뤼엘 「바닷가에 간 제레미」 일러스트레이션 안 보즐렉, 마음을 사로잡는 미소, 1988년.

확실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나갈 경우 문학물이 지니고 있는 역동성과 의미적인 여분을 감소시켜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출판사의 책들은 장식적인 아우트라인을 표지와 본문 사이에 활용하고 있어, 특별히 어린이 독자를 생각해서 고른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활자체의 의미적 가독을 높여주고 있다.

#### ‘마음을 사로잡는 미소’의 경우

프랑스 아동출판 실험정신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계승하고 있는 출판사가 바로 이 ‘마음을 사로잡는 미소(Le Sourire qui Mord)’라고 할 수 있다. 이 출판사의 대표인 크리스티앙 브뤼엘(Christian Bruehl)은 소위 ‘출판지원금을 끌어들이는 귀재’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팔리고 안팔리는 문제를 떠나, 자신이 생각한 책을(그것의 개발비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끝내 실현하는 드문 출판인으로 소문이 나 있다.

초창기 일러스트레이터인 안 보즐렉(A. Bozellec)과 함께 만든 책들 속에는 기존의 어린이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주제들: 아주 어린 아이의 성적인 경험과 소외감,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느끼는 학교교육 등 새로운 주제를(그것도 흑백의 이미지로) 다루고 있었다.

“읽는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서의 이미지를 읽는 것이고, 이미지들 사이를 읽는 것이고, 색을 읽는 것이고, 흑과 백을 읽는 것이고, 페이지 사이의 단절을 읽는 것이고, 전체 페이지의 리듬과 글과 이미지의 강약과 상대적인 위치를 읽는 것이고, 책을 이루는

모든 단위를 읽는 것이다. 우리의 눈·시선을 그 속에 잠복시켜 감각을 이루는 모든 책의 요소들을 해체하는 것이다.”

브뤼엘의 책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집요하다. 어린이책은 그에게 그 속에 담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안하고를 떠나’ ‘책이라는 물건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 기쁠 때 그곳에 있고, 슬플 때 그곳에 있고, 명백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어린이의 모든 감각의 영역에 함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따라서 전체가 이루고 있는 이야기 구성과는 별도로 페이지 페이지마다 강력한 이미지로 독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일생을 두고 떠오르는 이미지 사진첩과 같다. 다만 우리의 사진첩에

는 즐거움과 아련한 추억이 담겨 있고, 브뤼엘이 만든 책 속엔 미묘한 심리상태와 탐색하는 아이의 모습이 있거나 무언가 갈망하는 순간들이 담겨 있고, 전율하는 순간의 모습들이 있을 뿐이다.

#### 맺는말

‘반 어린이주의’의 어린이책은 무엇보다 주제와 조형언어의 선택의 폭을 무한하게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그 특징을 삼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이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어린이책이 추구해야 하는 차의적이고 풍요로운 감각의 어른들의 기준으로 거세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는 진정한 ‘어린이주의’의 또다른 모습일 뿐이다.

## 최신 정보에 의한 가장 좋은 컴퓨터서적!!



최단 컴퓨터서적 전문출판!!  
크라운출판사

서울특별시 중구 연건동 273-12 TEL: 745-0311~3 FAX: 741-3231

- **최신 컴퓨터 용어 대사전**  
최신용어를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였으며, 한글 색인을 수록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편집하였다.  
컴퓨터용어사전편찬위원회 편/15,000원
- **반가워요 MS-DOS 6**  
하드디스크를 압축하여 2배로 쓸 수 있는 Double space, 메모리 최적화 기능의 Mem Maker DOS, 바이러스 검역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이 수록되었다.  
IDA 그룹 저/10,000원
- **MS-DOS 입문**  
교실에서 제시한 심습위주의 내용을 한단계 한단계 키보드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고, 입력한 결과를 확인해 보자. 어느새 전문가가 될 것이다.  
임인홍 저/7,000원
- **자세하게 배우는 dBASE III PLUS**  
dBASE 명령어의 사용법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고, PROGRAM 작업에 적용할 수 있게 체계적인 순서를 배어하였다. 순화정 저/7,000원

- **윈도우즈용 Adobe Photoshop V.2.5**  
2차원 통합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광고디자인, 전자출판, 애니메이션, 순수미술 등에서 완벽한 재료를 해냅니다. 안중찬 저/12,000원
- **한글 윈도우 3.1**  
한글 윈도우 3.1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여 초보자도 자유롭게 Word Processor, Graphic Editor, CAD 프로그램 등을 쓸 수 있게 하였다.  
이희조·노종수 공저/12,000원
- **MS-ACCESS (윈도우즈용 데이터베이스의 절정 고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지식, 테이블, 쿼리, 리포트, 매크로, 모듈 등을 포함한 책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록하였다. 지구동호회 저/11,000원
- **배치파일**  
배치파일로 프로그래머들만이 만들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간단하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탁수 외 1인 공저/8,000원

- **Auto CAD R.11+R.12**  
Auto CAD 설치하기 및 들어가에서 Auto CAD의 SETUP에 관한 명령어, 기타 Utility, 3차원까지 Auto CAD의 모든 것을 실었다.  
주봉술·김정희 공저/10,000원
-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치료)**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과 퇴치 방법, 백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여, 예방과 치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석철 저/12,000원
- **내가 만드는 컴퓨터**  
컴퓨터의 제작 및 각 에러에 대해 사용자 본인이 응급조치 할 수 있게 했으며,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친밀도를 높게 하였다. 이원재 저/7,000원
- **신세대 트리오 DOS 6.0+한글 2.1+한글 윈도우 3.1**  
이 책은 세가지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여 초보자도 남보다 빨리 그리고 익숙하게 최신버전을 배울 수 있도록 한권에 모았다. 류재규 저/12,000원

- **한글 워드 5.0**  
고품위의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워드 아트 기능이 있으며, 한글 워드로 100% 편집을 실현하는 워드프로세서의 진가를 보여 준다. 임용기 저/8,000원
- **한글 2.5**  
편집중심, 예문공부, 화면편집 100%, 지면배치, 연관된 기능, 권장치체시, HP4 600dpi, 책자 편집의 실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정일우 저/8,000원
- **PC 사용자 가이드**  
컴퓨터 바이러스, dBASE III PLUS, LOTUS 1-2-3, 포트란 등에 관한 기본 상식과 클리퍼 컴파일러 사용방법, Trobo-C Ver.2.0, 윈도우즈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최형오 외 3인 공저/10,000원
- **CD-ROM 윈도우즈 공개/웨어웨어**  
멀티미디어 프로그램들과 그 프로그램들로 듣고 볼 수 있는 비디오(AVI, MPEG), 그림(PCV, BMP, GIF), 오디오 음악회에 MIDI, MOD, WAV 들을 수록 하였다. 건검머리컴퓨터연구소 저/14,000원

- **멀티미디어 타이틀 제작 기법**  
멀티미디어 타이틀 제작시의 모든 도구의 특성과 과정을 실습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의 타이틀 제작도구들을 소개하였다.  
조화형 저/8,000원
- **재미있는 PC 통신**  
전화나 팩스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컴퓨터 통신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책으로 컴퓨터 통신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보자. 류재규 저/8,000원
- **볼랜드 C++ 4.0 (Borland C++ 그 베일을 벗긴다)**  
Borland C++ 4.0을 100% 안다고 프로그램들을 잘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Borland C++ 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줌으로써 여러분을 고급 C++ 프로그래머로 만들어 줄 것이다.  
정문기 저/18,000원